

# 역사문화교육 현장으로 '주목'

무주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사업 선정... 조선왕조실록 봉안행렬·봉안식 재현

무주군은 무주문화원이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한 2019년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1억18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원천콘텐츠 발굴 사업은 지역유산 기록과 지역문화 데이터 활용, 지역관광연계 사업 등 지역민의 고유한 원천 콘텐츠 확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문화원은 '조선왕조실록의 적상산 사고 봉안행렬 및 봉안식 재현과 기록화 사업'이라는 주제로 주목을 받았다.

'조선왕조실록의 적상산 사고 봉안행렬 및 봉안식 재현과 기록화 사업'은 조선왕조실록과 적상산사고에 관한 것으로, 조선왕조실록 행렬을 무주관에서 마중 나가는 모습과 조선왕조실록을 적상산사고에 봉안하기 전 무주관에 잠시 보관하기 위해 진행했던 보관식을 재현하는 내용이다.

무주문화원에서는 2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봉안행렬(조선왕조실록을 적상산사고로 이동)과 봉안식을 무주읍 일원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이 과정을 촬영하고 설명을 담은 영상물도 제작해 공유할 계획이다.

무주문화원 팽갑삼 원장은 "봉안행렬의 장엄하고 화려한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역사를 품고 있는 무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선왕조실록과 사고의 고장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



조선왕조실록 봉안행렬 디오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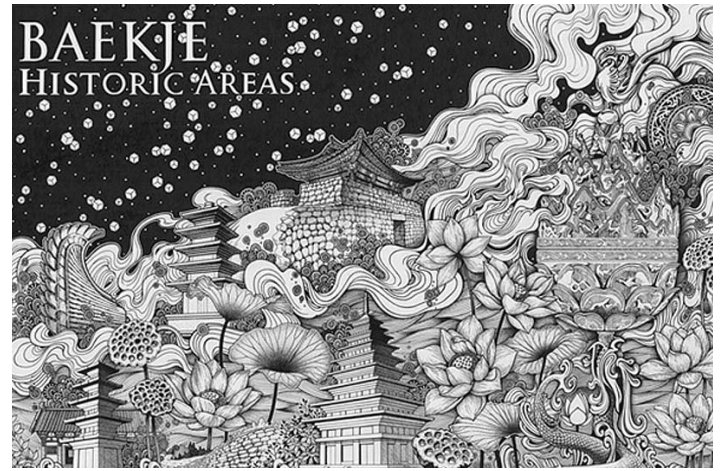
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증을 통해 봉안행렬의 의미와 과정을 되살리는데 주력하는 한편, 봉안행렬에 담긴 축제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묘향산에서 무주 적상산으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조선왕조실록 적상산 사고본이 북한과의 민간교류 협력 기반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의 적상산사고는 세계기록문화

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국보 제151호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족보인 선원록 등 5,541권이 약 300년 간 보관돼 있던 곳(사고지유구는 1992년 무주양수발전소 상부댐 건설로 수몰)으로, 복원된 사고(사고지유구 위 기슭으로 이전·복원·1995년 전라북도 시도기념물 제88호 지정)에는 현재 조선왕조실록과 선원록 복본 39권이 제작, 전시돼 있으며 전시패널과 디오라마 등 총 22종의 전시물들이 설치돼 역사문화교육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안미란 작가 - 백제의 숨결을 느끼다

## 역사유적, 일러스트로 만나다

백제세계유산센터, 일러스트 공모전 우수작품 16점 선정

(재)백제세계유산센터는 지난 2017년 첫 번째 일러스트 공모전에 이어 제2회 백제역사유적지구 일러스트 공모전을 개최하고 총 16점의 우수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와 함께한 추억'이라는 주제로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주간 진행되어, 전국에서 22개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다.

센터에서는 충청남도 공주시와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에 소재한 8개 유적에 대하여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주제가 적절히 나타나고, 독창성과 상징성이 잘 표현된 작품들이 우수작품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우수작품은 대상 1명(3백만원), 최우수상 2명(각 2백만원), 우수상 3명(각 1백만원), 입선 10명(각 50만원)을 각각 선정했으며,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재청장상과 5개 자치단체장의 상장도 함께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선정된 작품은 백제역사유적지구

일러스트 공모전 홈페이지([www.baekjeilust.kr](http://www.baekjeilust.kr))와 (재)백제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http://www.baekje-heritag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8일~14일까지 개최하는 백제문화유산주간에 국립공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에서 전시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친근한 이미지를 방문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5개 자치단체의 정책 홍보자료와 백제세계유산센터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서도 소개될 예정이며, 앞서, 달력 등으로도 제작하여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종주 센터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문 일러스트 작가부터 그림을 좋아하는 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흥미롭게 표현해주셨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러스트 공모전을 개최하여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완주문화재단, 예술인창작지원사업 19팀 선정... 작년 대비 공연예술·문학·출판분야 증가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은 2019년 예술인창작지원사업 공모결과 5개 지원분야, 총 19팀에 대해 7,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술인창작지원사업에 총 54팀이 지원했고, 서류심사와 인터뷰심의를 거쳐 약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장르별로는 시각예술분야가 5팀, 공연예술분야가 8팀, 문학·출판분야가 5팀, 다원예술분야 1팀, 공간지원 2팀으로 지난해에 비해 공연예술분야와 문학·출판분야의 증가가 돋보여 기대가 된다.

예술인최초지원분야에는 황재남의 '완주 100경 사진전'을 비롯 손안나의 '완주가 아름다운 이유는 골목이 있기 때문이야', 이우영의 '술주전지展', 최현의 '최현 개인전', 김민선의 '제비와의 여행' 등 5명(팀)이 선정되었다.

예술인 성장지원분야에는 김성석의 '개인전-조각이야기', 유광식의 '완주소년', 이정지의 '고향의 정을 그림책에 품고', 박정순의 '완주 팔포가', 하나로 예술단의 '우리가 걸어온 길', 극단포즈의 '꽃피는 삼례', 극단오락의 '이름없는 역사! 완주 역사 인물 찾기 시리즈 1탄!', 너머골 사람들 '제3회 너머골 이야기' 등 8명(팀)이 함께 한다.

작은예술지원분야에서는 최민주의 '동화 딸기마을', 이승희의 '사부작 사부작 책만들기



완주문화재단이 2019예술인창작지원사업 공모결과 5개 지원분야, 총 19팀에 대해 7,0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예술인들은 6월부터 11월까지 완주 전역에서 창작활동을 진행한다.

실험실 시진경, 이은경의 '피아노로 만나는 아름다운 영화음악', 강소연의 '독립출판-취미는 도망' 등 4명(팀)이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기획으로 선정되었고, 창작공간조성지원은 풍남장이협동조합의 '구입리 883 어른들의 놀터', kb창작연구소의 '아뜰리에 in 완주' 등 2

팀이 선정되었다. 선정예술인들은 6월부터 11월까지 완주 전역에서 창작활동을 진행하며, 오는 11월 5일부터 약 3주간은 누에아트홀에서 전시와 공연 등 결과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 김제문화예술회관, 미술사 오은영의 Fantastic magic show 선보여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미술사 오은영의 Fantastic magic show'를 선보인다.

미술사 오은영의 미술쇼는 의상이 변하는 '의상 체인지 미술', 아름다운 꽃을 이용한 '플라워 매직' 등을 선보이며 미술사 유원석의 공연 또한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여러 마리의 비둘기들이 사라지는 '비둘기 매직', 관객과 함께하는 '관객 참여형 미술

등 다양한 퍼포먼스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미술사 오은영은 2003년 홍콩 세계미술대회에서 최고상 수상 등 화려한 경력이 있는 베테랑 미술사다. 다양한 무대 경험과 방송 경험을 토대로 완성된 연출을 통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눈길까지 사로잡을 예정이다.

관람권 예매는 21일 오전 8시부터 김제문화예술회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된다.

/김제=곽도태 기자






###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